



## 설정함

-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보호법익과 형사정책적 요청을 고려하여 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’ 등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설정하고,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함
- ☑ 한편 사기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『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』의 정의 규정에 ‘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,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’를 추가하기로 함

## 1 제135차 회의결과의 요지

### 1.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심의

#### ■ 권고 형량범위안 정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	- 8월, 100만 원 - 700만 원	4월 - 1년, 300만 원 - 1,200만 원	8월 - 2년, 500만 원 - 2,000만 원
2	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	- 6월, - 500만 원	2월 - 10월, 100만 원 - 1,000만 원	4월 - 1년6월, 300만 원 - 1,500만 원

#### ○ 설정대상 범죄

- 1유형[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]: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(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, 제2호)
- 2유형[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]: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[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(제10조 제2항), 제3호]
- 위 각 행위의 상습범[위 각 형의 1/2까지 가중](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)

#### ■ 권고 형량범위

- 종전 양형실무의 70~80%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경험적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음
-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법정형,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

형량범위, 양형실무,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

○ 각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됨

- ‘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’(1유형), ‘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’(2유형) 모두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각각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3년, 2년의 징역형 또는 3,000만 원, 2,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권고됨\*\*

[\*\*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. 따라서 ‘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’(1유형)의 최대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( $2년 \times 1.5 = 3년$ , 법률상 가중을 하지 않은 단일범죄 처단형에서의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전제로 함, 이하 같음) 또는 벌금 3,000만 원( $2,000만 원 \times 1.5 = 3,000만 원$ ), ‘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’(2유형)의 최대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( $1년6월 \times 1.5 = 2년3월$ ) 또는 벌금 2,000만 원( $1,500만 원 \times 1.5 = 2,250만 원$ )이 됨]

## 2.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 심의

### ▣ 양형인자표안 정리

<표 삽입을 위한 여백>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</li> <li>○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(1유형 중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함)</li> <li>○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잔혹한 범행수법</li> <li>○ 중한 상해(2유형)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각 및 언어 장애인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</li> <li>○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종 누범</li> <li>○ 상습범인 경우</li> </ul>
일반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적인 범행</li> </ul>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○ 상당한 피해 회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li>○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</li> </ul>

■ ‘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’, ‘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’, ‘잔혹한 범행수법’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

○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특성과 양형실무,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함

■ 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’ 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, ‘상당한 피해 회복’ 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

### 사유로 설정하고,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

-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·사회적 법익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을 아울러 고려함
- 다만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,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는 포함하지 아니함
-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,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,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·판단하도록 함

### ■ '중한 상해'를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, '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'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

-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형인자로 설정함
- 중한 상해나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 이외의 결과 발생은 중립적 양형인자로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함

### 3.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'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'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 추가 심의

### ■ 특별가중인자인『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』 정의규정에 “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,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”를 추가

- 의료,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,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함

### ② 향후 일정

-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)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, ⇨ 2) 유형 분류 결정, ⇨ 3) 권고 형량범위 설정, ⇨ 4) 양형인자 설정, ⇨ 5)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

로 이루어짐. 이번 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3), 4) 및 5)에 대하여 논의(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관한 4)에 대하여 추가 논의)하였음

■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심의·확정될 예정임

- 2025. 1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확정, 각 양형기준(사기범죄,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, 동물보호법위반범죄, 성범죄)안 의결
- 2025. 1. ~ 2025. 2.: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
- 2025. 3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제출된 의견 심의 및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

■ **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36차 회의)**

- 일시: 2025. 1. 13. (월) 오후
- 안건: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, 각 양형기준안 의결